

2000년대의 채란 양계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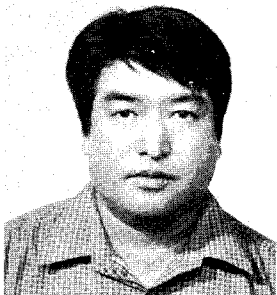
서기 2001년을 생각하면서

2000년대의 채란 양계산업이 어떻게 변
화될 것인가 - 또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를 짐쳐 보라는 주문을 받
고 우선 이러한 종류의 글을 쓰기에 자신이 합당
한 사람인가부터 생각해 보았다. 1969년 이후 채
란계사업을 직접 경영해 보지도 않았고 항상 열
외자의 입장에서 끊이지 않고 관찰만 해온 필자
로서 과연 적임자 인가? - 만일 「선수보다 항상
관람자가 경기의 흐름을 더 잘 본다」는 옛말이
사실이라면 아마 적합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만
하고 필자 나름대로 보아온, 또 원하는 방향을
기술하기로 하였다.

우선 1986년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15년후인
서기 2001년의 채란 양계산업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를 불쑥 물어 온다면 가장 확실하게 대답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소비자 또는 시대)의 요구에 맞춰서 발
전시켜 나가지 못한다면 도태될 것입니다」 라고
밖에 얘기할 수 밖에 없게될 것이다. 그러면 다
시 이렇게 물어볼 것이다.

「무엇이 시장의 요구인가? 소비자가 원하는
계란의 난중은? 병아리의 품종은? 생산자들이
원하는 사료품질은? 예방약품들은? 기구 및 시
설은? 계란의 판매규격은?」 등등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 대
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역시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



김 영 옥
(제일사료(주) 상무이사)

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또한 외국의 산업 발전 변화를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짐쳐보면서 때로는 시장의 요구를 창출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 - 현재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15년후인 서기 2001년의 채란양계 산업은 우리 자신들이 시장의 요구에 맞추거나 시장의 요구를 계속 창출해 내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15년 후인 서기 2001년을 짐쳐보기 전에 우선 현재의 우리 위치를 정확히 알기 위해 15년전인 1970년대와 1985년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과거의 15년간과 미래의 15년간은 그 변화 속도가 엄청나게 다르겠지만, 지난 15년간의 양계산업은 산업성장 4 단계의 측면에서 바라 본다면 (1)태동기→(2)성장기→(3)성숙기→(4)완숙기의 4 단계중 제 1, 2 단계를 거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일단 성숙기에 들어서 있다고 생각되는 현 시점에서 보면 앞으로의 발전은 양적(量的)인 측면보다는 질적(質的)인 측면에서 더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 것이다.

하여튼 현재의 우리 채란 양계업이 지난 15년간에 어떤 변화가 왔었나를 한번 살펴보자 - 현재의 우리 위치를 좀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15년전에 비해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1985년도에 대한 교육연합회에서 40개직종에 대해 각계 각층의 1,873명을 상대로 사회적 경제지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를 조사하였다(월간양계 '85. 10월) 그 당시 축산업자(양계 포함)의 위치는 5 급공무원과 7 급공무원의 사이로 사회적지위는 22위였고 경제적 지위는 23위로서 사회적지위는 영화배우나 텔런트보다 한급 낮았으며 경제적지위는 육군대위보다 한급 낮고 일간신문 기자보다는 한급 위였다.

위의 얘기는 좀 다른 각도이기는 하지만 채란 양계산업에 있어서 우리의 현재 위치는 어떤가를 좀 알아보자.

(표 1)에서 지난 15년간을 한번 살펴보면 시장의 요구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여러면에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표 1. 1970년대와 1985년대의 채란양계산업 비교

년도	국민소득	국민 1인 축산물소비량	1인계란 소비량	양계사양호수	닭사육수수 (육계포함)	호 당 사육수수	3,000수 이상 사육농가수	총수수중 3,000수 이상 농가의수수비율
1970	\$ 248	11.04kg	4.23kg(77개)	1,338,500호	23,476,900수	17.5수	699호	1971년14.0%
1985	\$ 2,032	44.90kg	7.20kg(131개)	302,800호	51,081,000수	168.7수	4,432호	89.2%
비교	819%	402%	170%	22.6%	217.6%	964%	634%	75.2%포인트 (637%)

년 도	년 평 균 대 란 가 격	닭경제능력검정성적(생산성추정)				채란 1계군 규모(추정)	백색계 대 유색계비율(추정)	육성용사료 생산(년간)	산란용사료 생산실적(년)	육성사료대 산란사료비율
		산란 지수	난 중	성계생존율	사료요구율					
1970	1971. 11.6원/개	제 2회 평균 198.3	56.9g	84.0%	3.13	1,000~ 2,000수	86:14	73,630톤	316,437톤	1:4.3
1985	47.5원/개	제 17회 백색계 252.6	61.4g	92.9%	2.71	5,000~ 10,000	54:46	276,227톤	1,320,508톤	1:4.8
비 교	413%	54.3개 127.4%	4.5g 107.9%	8.9%포인트 110.6%	0.42 13.4%개선	500%	백:63%감소 유:329%증가	375%	417%	111.6%증가 (환우영향)

자료: 축산통계, 경제능력검정성적(양계협회) 및 축산국 사료통계 등.

● 특집/채란계산업 발전방향

국민소득의 증가는 비록 그 증가폭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축산물소비의 증가를 가져왔으나 축산물 증가폭 만큼 계란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현상은 앞으로도 점점 더 심화되어 갈 것이다. 따라서 생산자들의 수익성은 점점 더 낮아지게 되었고 이러한 수익성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게 됐으며 그 결과는 국내의 유일한 공식적인 통계인 닭 경제능력검정성적만 가지고 비교해 보더라도 산란수의 54개증가로 무려 27%의 개선과 난중의 4.5g 증가 및 생존율의 10% 개선을 가져왔다.

이러한 노력들은 앞으로도 점점 더 확대될 것이며 이와 함께 대량 사육에 의한 수익성보상을 얻기 위해 호당 사육수수의 증가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1970년대에 닭 사육수수가 용도별로 채란계와 육계로 구분되지 않아서 편의상 여기에서는 같이 비교해 놓았으나 채란계만 비교해 본다면 훨씬 더 대형화의 방향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시장의 요구중 난중에 있어서는 대형화를 선호하는 추세에 있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닭의 품종 역시 특란생산이 높은 품종을 많이 사육하게 되었다.

1970년대의 낮은 성계생존율은 품종의 선택 및 방역, 사양기술의 개선으로 1985년대에 있어서는 93% 가까운 성계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어서 약 11%의 개선을 가져왔다.

계란가격의 변화는 단순비교에 의해서만 판단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413%의 증가가 이루어 졌지만, 도매물가지수의 변동에 비하면 그 증가폭은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다.

육성용사료와 산란용사료의 비율이 변하는 것은 그동안 강제환우 등에 의해 높은 육성비를 낮추려는 노력과 특란선호도 및 밀집양계에 있어서 육성의 어려움 등을 회피하려는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였다.

이외에도 1970년대에 주로 발생한 질병들은 뉴캐슬, 계두, 마렉 및 백혈병이었으나, 15년후인 지금은 전염성 후두기관염(I. L. T), 기관지염(I.

B) 및 산란저하증등 닭의 폐사보다는 경제적 손실을 크게 해 주는 질병쪽으로 변화해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방역은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질병에 대한 방역의식은 희박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위의 비교숫자를 바라보면서 과연 15년후인 서기 2000년에 이 나라의 채란계 산업은 어떻게 변해 있을 것인가를 추정해 보자. 동시에 큰 변화를 가져 올 몇가지 사항을 연구해 본다.

2000년대의 채란 양계산업은...

서기 2000년의 채란 양계산업의 변화를 얘기하기 전에 2000년대의 국민생활 특히 식품소비구조를 추정해보면 현재의 곡류, 육류, 소채류 및 과일류에서 소채류, 육류 및 곡류로 그 비율이 점차 변화 될 것이며 서기 2000년도의 국민소득은 1인당 약 5,100불내외로 현재보다 약 250%의 증가를 가져 올 것이며 계란소비량 역시 1인당 11.4~16.1kg으로 현재보다 158~224%의 증가를 가져 올 것으로 몇분은 추정하고 있다(한국 축산학회지 제28권 5호, 맹원재: 2000년대 한국인의 식품소비구조 김강식: 2000년대 한국축산업 전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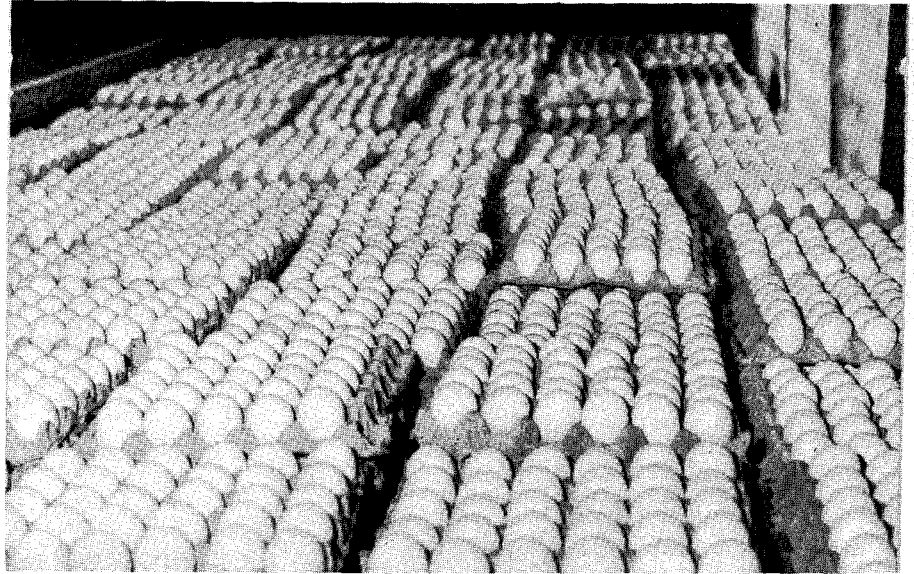
위와 같은 가정하에서 채란양계·업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1) 계란 유통구조와 계란식품의 위생처리.

서기 2000년대 1986년도인 현재와 비교하여 가장 큰 변화가 채란양계산업에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계란의 식품으로서의 취급 및 그 유통과 정일 것이다.

현재에도 계란의 위생처리 및 보관 등에 관하여 약간의 바람이 일긴 하지만 15년후에는 소비자들이 위생처리되어 보관기일이 명시되어 있는 계란을 찾게 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 따라서 계란의 유통은 전국의 몇 군데 유통센터(물론 위생처리시설이 갖춰진)에 의해 전국적으로 유통될 것이며, 이러한 유통센터들의 위치는 현재 사육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유통센터에서 수집된 계란은 선란, 소독 및 유통

▷시장요구에 맞춰서 발전해 나가지 못하는 산업은 도태될 것이다 (물론 계란도 예외는 아니다).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광물성기름도포를 하게 될 것이며, 최장 유통기간은 14~21일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또한 몇몇 대형 농장에서는 농장 고유의 상표를 붙이거나 표식을 하여 농장생산 계란의 품질 보증을 하여 계란시장에서의 차이(differentiation)를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에 따른 양계 산물의 홍보 역시 경영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2) 사육형태 및 사육관리기술

이러한 유통구조하에서 사육형태는 1개 유통센터를 가동할 만큼 대형화 또는 집단화되어 갈 것이며, 이에따라, 1계군의 규모 역시 점차 대형화 되어 갈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필연적으로 기계화 및 자동화에 의해 양계사양기술은 보편화된 방향으로 변천되어 갈것임을 추정할 수 있으며, 다만 방역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전문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것이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대형화 및 집단화는 육성과 산란을 분리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이에따라 육성계의 전문 사육농장은 청정지역으로 위치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상당한 수의 농장들에서는 소형컴퓨터에 의한

산란기록및 분석이 이루어질것이며 이에 의해 경영방향이 제시될 것이다.

(3) 생산성 및 품종의 선택

대부분 육종회사들의 서기 2000년대 닭개량 목표는 산란수 330개 내외로 닭의 잠재적 생산성은 극대화에 달할 것이며 이에 맞추어 사료요구율 역시 2.0이하의 닭의 육종속도에 맞춘 사료들이 연구 개발 되어 질 것이며, 난중은 오히려 유통센터에서 처리 포장된 상품으로 유통된다고 추정하면 반드시 더 이상 대형화될 것인지는 의문이 간다.

또한 백색계와 유색계의 비율 역시 계란의 품질검사의 용이성및 상품으로서의 깨끗한 느낌때문에 반드시 지난 15년간과 같은 속도로 유색계 선호도가 높아 질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4) 관련 산업체들의 변화

위에 얘기한 유통구조를 위한 대형화 또는 집단화는 필연적으로 자동화및 기계화를 요구하게 되며, 이에따른 관련 산업체들 즉 부화장, 사료공장 및 약품회사들의 생산제품공급 및 서비스 역시 일종의 계열화되어 갈것임을 추정하기는 어렵지 않다.

즉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연간 고정 또는 계획

● 특집/채란계산업 발전방향

전 계란의 공급을 위하여 병아리 사육이 사전 계획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연관 부화장과 년간 계약이 이루어 지게 될 것이며, 유통센터에서 처리되는 계란 처리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은 사료의 공급계약을 몇몇 관련회사들과 맺게 될 것이고 약품 역시 위와같은 방향으로 계열화 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선택기준은 대부분 경영비에 부담을 가져 오게될 시장가격과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하여 결정짓게 될 것임을 추정할 수 있겠다.

(5)방역 대책

집단화 또는 대형화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질병의 방역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며, 대부분 이들은 약품회사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연구된 지역에 의한 방역서비스 대책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수

년간에 걸친 그 지역에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예찰및 정기적인 혈청검사 등에 의한 조직적인 방역대책의 수립만이 이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해줄수 있을 것이다.

15년후 - 서기 2001년.

이상 지난 15년과 앞으로의 15년을 대강 섭렵하면서, 항상 산업은 분화-통합-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되어 나간다는 어느 경제학자의 얘기를 생각하게 된다. 다만 그 과정이 량(量)에서 질(質)로 다시 량(量)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동시에 생각하게 된다.

편집자의 주문에 대한 필자의 줄필이 그 대답이 되겠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장의 요구에 맞추어나가지 못하면 그 산업은 낙후되는 것이다.」 ♣

값싼 병아리
튼튼한 병아리

이것이 한일농산의 기본정신입니다.



하이브로 : 하바드

생산과 판매를 분리하였습니다

분업화 전문화는 값싼 병아리 튼튼한 병아리 생산의 지름 길이며 양질의 서비스로 여러분의 영원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사업본부 : 경기도 이천군 설성면 암산리 408 (전화 0336-32-6168)
 판매점 : 천안 백마축산 (전화 0417-3-0964)
 의정부 새한축산 (전화 0351-40-5492)